

또래 성폭력 예방 안내문

교무실 : 063-452-3732

행정실 : 063-452-197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수시로 반복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사이에서도 상대가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거나,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지는 등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주의깊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교시간 이전, 하교시간 이후 등 별도 수업이 없이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로 하는 것, 보여주는 것을 모두 성폭력(성추행,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당하는 사람이 모욕감을 느낀다면 성폭력으로 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2. 또래 성폭력이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친구들끼리 친밀감의 잘못된 표현이나 장난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치마 들추기 또는 바지 내리기	동침하기	화장실에서 쳐다보기
		
언어적 성폭력	엉덩이 치기	불법 촬영 후 공유하기

3. 또래 성폭력 예방수칙

- 과도한 몸놀리와 신체접촉은 하지 않기
- 평소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기(싫어, 하지마 등)
- 놀다가 친구가 싫은 표정을 지으면 그만두기
- 친구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내 맘대로 하지 않기
- 성적으로 불편감을 조성할 수 있는 언어 사용하지 않기(신체적 특징 놀리기 등)

4. 또래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잘못했으면 반드시 사과하기
-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 하지 않기
- 불편한 느낌이 들면 즉시 그만두라고 말하기
- 피해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알리기
- 증거물을 잘 보관하고, 선생님께 알리기



5. 너와 나의 경계를 존중해요

-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려고 할 때는 ‘싫어’, ‘안돼’라고 말합니다.
- 자신이 스킨십 등 상대방의 경계를 침해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허락)를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장난과 폭력의 차이를 이해해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장난**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서 누가, 왜 불편할지 생각해 보세요.

장난이라며 중요부위를 툭 치고 달아나기

누가 누구랑 사귀다고 소문내기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친구의 신체 부위 놀리기



Safe! 안전하게 친구들과 생활하려면...

- 평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요.
-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확실하게 표현해요.
- 스킨십을 하고 싶다면 먼저 허락을 구해야 해요.
- 성적인 농담이나 놀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안 돼요.
- 여러 사람이 “뿌뿌해!” 등과 같은 성적인 행동을 시키거나 강요하면 안 돼요.
- 신체 노출이나 성적인 행동을 사진 찍어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면 안 돼요.

[출처]경계존중교육? 타인을 존중하는 첫걸음, 교육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발간 ‘나의 성, 나의 인권’

2025. 3. 24.

군 산 동 초 등 학 교 장